



김인수 고문



황규홍 고문

## 한밭... 심 없는 수레바퀴의 발걸음

# 대전시 지회



박찬헌 지회장

서울발 남행열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노라면 갑자기 탁 트인 한 도시를 만나게 된다. 바라보고 또 보아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땅. 그래서 「한밭」이라고 불리웠다는 곳. 이곳이 바로 대전이다. 대전의 역사는 수레 바퀴의 역사 그 자체이다. 경부와 호남 두 철도와 고속도로가 거대한 줄기를 이루며 대전으로 모이고 뻗어 나간다. 그리하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명실 공한 중부 제일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힘차게 생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협회 대전시지회(지회장 박찬헌), 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국 지회 어디 못지 않은 열성과 단합된 힘으로 생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1967년 창립 이래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작년 3월 지회로 승격한 것과 현재 350여개의 회원 업소를 갖추고 대전 제과점 중 90%가 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전시지회가 있기까지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67년 16개 업소로 시작한 당시의 대전시 지부는 재원이

부족해 협회가 해산될 지경까지 이르러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협회 운영의 회생 계기가 된 우유 사업은 하나의 일화를 넘어서 협회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초대 지부장을 비롯해 초창기 역대 지부장들이 손수 자전거를 타고 개별 업소를 돌아다니며 우유를 배달해 본 케도에 올려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유 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 우유사업, 협회의 산역사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르른 대전시 지회는 산하에 동구지부(지부장 전해성), 중구지부(지부장 임영진), 서구지부(지부장 윤주경), 대덕구지부(지부장 박동준), 유성구지부(지부장 김광준) 5개 지부를 관할하고 있다.

대전시 지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앞서서도 언급이 된 바 있는 우유 사업. 협회 창립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우유업체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아 개별 회원업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전시지회는 매달 우유업체로부터 90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충

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우유를 사용할 수 있어 단합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지회 차원의 활동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과우회와 과우산약회 활동. 이중 과우회는 50명이 회원으로서 협회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한 친목 단체로 명칭도 「과우 운영 친목회」로 바뀌 작년엔 독립한 후 회원의 애경사 등에 주력,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과우 운영 친목회(회장 황규홍)는 작년 송년회를 개최, 회원간의 인화 단결을 꾀한 바 있으며 한국제과 고등기술학교의 홍행홍 교장을 초청해 경영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과우산약회(회장 정동규)는 회원이 35명으로 매월 둘째 월요일 정기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초기에는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현재는 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지회가 단합된 힘으로 모범적



전해성 동구 지부장



임영진 중구 지부장



윤주경 서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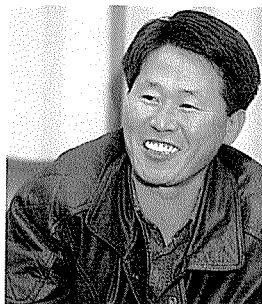
김광준 유성구 지부장



박동준 대덕구 지부장



정동규 과우산악회장



박래선 자을지도위원



이남수 지회총무

**대전의 역사는 수레바퀴의 역사 그 자체이다. 1967년 창립 이래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난 대전지회, 산하 5개지부와 과우회, 과우산악회는 모범지회를 만든 원동력이 된다. 생동감 넘치는 지회, 단합된 지회, 대전지회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 지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지구별 활동이다. 85개 업소 회원으로 구성된 동구지부는 90% 이상이 30대 업주로 92년 10월 동구 직능위생 단체 제1회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단결을 과시했으며, EXPO 기간 중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가두 캠페인과 점포마다 플래카드를 내걸어 제과업체의 위상을 한껏 높인 바 있다. 동구지부는 올해의 전국 체전에도 같은 행사를 계획 중이다.

### '94년은 지회 활성화의 원년

97개 업소로 구성된 중구지부는 한달에 한번 6·25 전쟁에 가장을 잃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시설인 「모자원」을 방문해 온정을 펼치고 있으며 친목 행사에 이어 회원 업소의 제품과 인테리어가 부족한 현실은 감안, 정신적인 자세의 확립을 위해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다.

80개 업소로 구성된 서부지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은 남다르다. 임원진이 술선수범해 단합에 힘쓴 결과 회원들의 매달 월


례회 참석률이 높아졌으며, 지역내 유성농고 식품공학과 학생과 자매 결연을 맺어 실습에 필요한 재료 공급에서부터 회원업소에 실습을 배려하고 지도해 기능사 시험에 100% 합격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외에 54개 업소의 대덕구지부와 20여개 업소의 유성구지부 또한 적은 회원과 재원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아원을 방문하고 지부장이 자비로 지부 운영을 이끄는 등 활성화를 위한 열성과 노력은 남다르기만 하다.

대전시지회 오늘날의 생동감 넘치고 활성화된 지회가 있기까지는 역대 지부장을 비롯한 구성원간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찬헌 지회장은 올해를 지회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았던 행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이를 체계화시키고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 속에는 그동안 대전시 지회가 해온 사업과 활동을 비롯해 회원 업소의 위생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는 위생 자율 지도 활동까지 광범위하다.

대전 아니 대전시 지회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대덕·둔산지구를 비롯한 서대전 지역이 도시 계획에 의해 확장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면에서만 대전시 지회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동감 넘치는 의욕과 지회 활성을 위해 단합된 힘으로 노력해 온 대전시 지회 회원이 오늘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글 박종선)